

## 2010년도 시가문학 분야 연구 동향

조성진\*

- |                     |
|---------------------|
| 1. 서론               |
| 2. 갈래별 연구 동향        |
| 2.1. 고대가요, 향가       |
| 2.2. 고려가요, 경기체가, 약장 |
| 2.3. 시조             |
| 2.4. 가사             |
| 2.5. 잡가, 민요         |
| 2.6. 일반론, 기타        |
| 3. 결론               |

### 1. 서론

본고는 2010년 한 해에 고전시가분야에서 학계에 제출한 연구의 성과들을 살펴보고 그 대체적인 동향을 이해하고 새롭게 제기된 연구의 방향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저술의 목록을 제시하여 다음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

2010년도 시가문학 분야에서는 학술지 수록 논문 143편, 박사학위논문 6편, 석사학위논문 10편, 단행본 저술 14편의 성과가 나왔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조와 가사 연구가 전체 연구의 2/3(100편)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개별 작품론이나 유형론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보인 연구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시조와 가사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시가 연구자로서는 여간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가사 연구에서 공간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

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사행이나 유배의 체험과 관련된 공간 이동과 그 확장이 원래부터 가사 장르에 두드러진 체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한·중·일 동아시아 세 나라 사이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심화되는 요즘에 이와 관련된 시사적인 관심이 문학 연구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 단행본 저술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성과물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고전시가에 대한 개괄적인 저술이거나 교양서적류, 주석서와 자료집, 기존 발표 논문들을 모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나온 완결된 결과물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는 우리 학계가 연구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바람에 그때그때의 연구 결과 요구에 맞추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오랜 시간을 두고 온축한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 연구 풍토 탓이 아닐까 한다.

본고의 서술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 논문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과 단행본을 차례로 다루기로 한다.<sup>1)</sup> 이는 학술지 논문이 새로운 연구 경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평이나 평가보다는 지난 연구 성과들을 차분히 살피며 정리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가문학의 하위 갈래별로 주목할 만한 연구들 중심으로 간략 소개하며 필요하면 간단한 언급을 덧붙인다. 그런데 시조와 가사의 경우, 다른 갈래에 비해 그 연구 성과가 많고 유형도 복잡하여 논의 항목을 더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장르론 또는 일반론, 작품 연구, 다른 학문 영역과의 비교 연구 등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 2. 갈래별 연구 동향

#### 2.1. 고대가요, 향가

1)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은 다루지 않는다. 본격적인 학술논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단행본 가운데 이미 발표했던 논문들을 다시 수록한 것은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따로 말하지 않는다.

고대가요는 학술지 논문만 5편이며, 향가는 학술지 논문 18편에 석사학위논문 1편에 단행본 1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대가요 연구는 몇 안 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기존 연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갈래보다 더욱 뚜렷이 보인다. 특히 텍스트 해석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가운데 작품의 객관적 조건을 나름 심도 있게 따지려 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예컨대 박인희는 <황조가>에 나온 피꼬리가 음력 10월에 북쪽 지방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창작 배경으로 다른 요인을 거론하였다. 곧, 어린 유리가 아버지 주몽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죽자, 이로써 다시 외로운 처지가 된 자신과 어머니를 빗대어 부른 노래가 <황조가>라는 것이다. 이는 창작 배경으로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치회와 화회의 다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어서 흥미롭다. 또한 ‘황조’의 생물학적 조건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객관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애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용호는 수로왕이 3세기 중엽 이후에나 가야의 정치 권력자로 등장한 것과는 달리 <구지가>가 초기 가야의 농경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노래임을 들어 수로왕의 탄강과는 무관한 풍요기원의 기능을 지닌 노래로 보았다. 곧, 신의 대리자인 거북을 좋은 말로 칭하여 물으며 부탁하는 ‘神人親和의 노래’라는 것이다.<sup>1)</sup> 손복희는 <공무도하가> 배경설화에 나오는 악기인 공후가 페르시아에서 유입된 小箏篋임을 밝혀 그 창작 시기를 후한 때인 159~192년 사이임을 논증하였다. 현승환은 <공무도하가>의 백수광부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역사자의 영혼을 진혼하는 무혼굿으로 보았다. 무혼굿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어 저승으로 고이 보내려는 뜻에서 가족이 행하는 의례로 한반도 전역에서 행해지며, 한편으로는 강을 건너려는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주술의 노래이기도 하다. 나아가 『고금주』에서 여육과 여

용이 그 노래를<sup>2)</sup> 전승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여성의 민요로 파악하였다.

향가 연구는 해독과 관련된 어석 연구(김수향, 김유범, 박용식, 박재민<sup>a</sup>, 황선엽)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향가를 다른 갈래와 비교한 연구에는 한역의 문제를 거론한 김혜은과 정소연의 연구가 있으며, 그 음악적 기반을 따진 류병윤의 연구, 민속학과의 견지에서 읽은 이창식의 연구, 일본 와카와 비교한 최정선의 연구가 있다. 이밖에 박재민(b)은 『화랑세기』의 진위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균여 향가에 대한 관심(김유범, 서철원<sup>a</sup>, 이선이, 정소연)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 개별 작품론의 편폭은 적은 듯하다.

김수향은 향가는 물론, 땅 이름과 이두에 두루 쓰이는 차차표기 ‘丙’가 향가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음에도 분명한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丙’를 ‘나’가 아닌 ‘예’로 읽고 그 문법적 기능을 피동/사동 보조어간으로 새롭게 읽고자 했다. 이에 따라 ‘丙’가 10구체의 사녀가게 향가의 1~8구 사이에만 주로 사용되어 사녀가게 향가의 구조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했다. 황선엽은 향가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아’의 표기 양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아’ 표기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들에 비해 고품일 가능성을 새롭게 살폈다. 이로써 향가 해독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어학 쪽의 연구지만 참조할 만하다. 박재민(a)은 <혜성가>에 나타난 ‘東’과 ‘岳嶺’, ‘星利’, ‘燒邪隱’의 독음을 확정하여 기존의 문학적 해석에 대한 재검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박재민(b)은 『화랑세기』의 진위 관련 논쟁의 일단을 소개하며, 이 책에 수록된 <송사다함가> 분석을 통해 작품에 쓰인 향찰이 小倉進平의 소론을 따르고 있음에도 근대의 언어가 노출된 점을 들어 『화랑세기』가 박창화의 창작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소연은 <보현시원가> 11수와 그에 대한 최행귀의 한역시를 내용과 형식구조라는 점에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시조의 3장 구조가 향가에서 왔다는 기존의<sup>3)</sup>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별 작품의 형식구조가 전체 11수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현시원가>의 연작성에 주목하였다. 서철원(a)은 향가 <보현시원가>와 선시에 나타난 종교적 서정성의 본질이 초월적 구도와 현실적 실천을 함께 지향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감성과 지각의

1) 이러한 생각 위에서 노랫말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곧 ‘首’를 뿌린 곡식 씨앗이 움틀 때 이고 나오는 머리, 곧 곡식 본래의 형상으로, ‘燔灼’은 한 낱말이 아니라 ‘불사르다’의 뜻을 지닌 ‘燔’과 ‘빛나다’의 뜻을 지닌 ‘灼’으로 나누어야 하며, ‘喫’은 ‘고함치다’의 뜻을 지닌 ‘喫’과 통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공존과 균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이해했다.

최재남은 민요계 향가인 <서동요>와 <헌화가>의 시적 구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애’라는 시적 발상과 그 표현법의 차이를 해명하고자 했다. 곧 <서동요>는 ‘A-B-(A)-C-(A)-D’의 선후창 구성으로 ‘차지하기의 집요함’을, 반면 <헌화가>는 A-B에서 대상을 향한 요구나 부탁을, C-D에서는 수로부인을 향한 주체를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 ‘마음 얻기의 암시’가 드러난 것으로 이해했다.

홍민우의 석사학위논문은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 여부 논쟁을 떠나 『화랑세기』 소재 시가의 문학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런데 필사자의 위작 여부가 여전히 치열한 논쟁 중인 상황에서 문학성을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위 박재민(b)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2.2. 고려가요, 경기체가, 악장

고려가요, 경기체가, 악장은 학술지 논문이 각각 13, 1, 3편 있으며 학위 논문으로는 고려가요에서 석사학위논문이 1편씩, 경기체가와 악장에서는 박사학위논문이 각각 1편씩 나왔다. 단행본 저술은 고려가요에만 3편이 나왔는데, 역주 또는 주석 작업이 2편이다.

고려가요 연구는 <청산별곡>(서철원a, 황병익b), <서경별곡>(조하연), <쌍화점>(어강석, 이정선b, 최은숙), <동동>(조규익, 황병익a), <가시리>(이정선a) 등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기영과 서철원은 일반론을 전개했다. 김기영은 『증보문헌비고』의 「악고」에서 고려가요로 또는 그렇지 않은 노래로 인식한 작품들에 대해 그 당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살피고 있다. 서철원(b)은 백제문화권을 공통 기원으로 한 속요와 『만엽집』이 계통적으로 동일한 원천을 지님을 전제로 ‘애정 소재’, ‘극적·극한 상황’, ‘이전가치’ 등의 주제론적 비교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속요 연구의 방법론을 확장하고자 했다.

개별 작품론 가운데 김명준, 어강석, 황병익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김명준은 고려 <처용가>와 무가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처용가>를 무가

로 보던 기존 견해에 반대하며 궁중 연회에서 흥취 제고를 위한 잔치용 노래임을 새로이 살폈다. 이는 <처용가>가 무격에 의한 전승이나 제의적 상황에서 구송, 주인공의 신성성, 주술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무가의 일반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처용가>는 무가가 지녀야 할 송고미나 주술성 대신 해학미와 흥취가 드러난다.

어강석은 <쌍화점>에 등장하는 ‘회회아비’와 ‘삿기광대’가 필연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이 고려 초기 태조 왕건을 도와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공이 컸던 외래인들의 후손, 곧 楊水尺임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이들이 고려 사회의 일원으로서 영위해 간 생활 모습을 통해 ‘雙花’를 ‘살고리’로 보았다. 이는 ‘쌍화’를 양수적이 생계를 위해 만들어 팔았던, ‘나무의 줄기를 재료로 만든 고리’, 곧 用器의 하나로 본 것이다. 이는 ‘쌍화점’, ‘雙花餅’이라는 말과 어울려 ‘쌍화’를 만두 종류로 이해하던 기존의 견해에 반해 전혀 새로운 견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편 이정선(b)은 <쌍화점>의 성적 욕망의 의미를, 최은숙은 ‘이 말씀’이라는 소문의 구성 양상과 기능을 살폈다.

황병익은 『고려사』 악지에 실린 <동동>에 대한 서술인 ‘蓋效仙語’의 의미를 이전 문헌을 통해 확정하고 <동동>이 ‘신선세계의 언어’를 빌려와 삶과 죽음의 구분을 초월하여 님과 함께 살며 신선세계에서와 같은 영원과 장수를 누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김지은의 석사학위논문은 여음의 음성상징성이 시적 자아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라, <청산별곡>, <쌍화점> 등 7편을 대상으로 자음과 모음의 사용 빈도와 그 성격을 살폈다. 그런데 유동적 음성상징을 지닌 유성자음의 빈번한 출현이 ‘流亡의 絶調’로, 양성 모음이 많이 쓰인 것이 ‘낙천적인 삶의 지향’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필자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음성상징성의 논리적 동인은 물론, 그 연관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손종흠의 『속요 형식론』은 고려 가요의 형식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이론적 근거로서 예술미의 형성원리와 시가미의 형성원리를 제시하고 고려 가요의 전반적 성격과 그 형식을 다루었다.

경기체가 변유유의 박사학위논문만 1편 있다. 그는 <한림별곡>의 율격이 엄격한 자수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들어 그것이 향가나 고려가요, 민요와의 관련성보다는 중국의 宋詞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보아 경기체가의 기원과 발생에 송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집단 창작물인 경기체가가 개인 창작물인 詞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경기체가를 지은 신홍사대부들이 송사를 잘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경기체가와 송사의 수사법이 같다는 것만으로, 실제로 같은지도 의문이지만, 두 갈래가 내용과 형식에서 비슷하다고 말하고 이를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이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한국 시의 주요 부분이 중국의 영향으로 비롯되었다고 보던 예전의 연구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학자들에게서 이런 식의 논의가 자주 보인다.<sup>2)</sup>

악장과 관련하여 정무룡은 정도전의 악장을 살폈고, 조규익(a)은 조선 초의 악장인 <오랴가>의 시대적 의미를 살폈다. 특히 문소전 악장에 관한 연구(b)를 통해 그것이 ‘시경-송-고려악장’의 前史를 이어 출현했으며 후대의 ‘보태평’, ‘정대업’ 악장의 모범적 선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승우의 박사학위논문은 <용비어천가>의 제작 기반을 세종대의 정치·문화적 사안과 연관 지어 새롭게 검토하였다. 곧 <용비어천가>를 ‘四祖’에서 태조, 태종, 세조에 이르는 왕통의 확립 문제를 명확하게 천명한 문건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稱頌之意를 부각시키려는 왕과 規戒之意를 강화하려던 신료들의 의도 사이에서 조선 초에서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용비어천가>가 수용·변전되는 궤적을 살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악장을 정치적 의도가 강한 갈래로 여기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증적인 연구가 아주 돋보인다.

### 2.3. 시조

시조는 학술지 논문 53편, 학위논문 2편, 단행본 1편이 조사되었다. 특히 학술지에 실린 시조 관련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해마다 그래왔던 것으로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로부터 동향을 파악하려면 이를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분된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를 간단히 언급한다.

새로운 자료 발굴은 권순회, 신경숙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권순회는 새로 발굴한 가집인 『詩歌曲』을 소개하며 그 주요 특성과 계보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가집은 시조 사설 419수, 가사 3수가 실려 있는데 19세기 전반 가곡 연행의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경숙은 1897년 靑荷浪人이 편찬한 『성악원조 가곡』(서울대중앙도서관 소장)을 처음으로 발굴·소개하고, 가집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이 가집의 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곧 『성악원조 가곡』이 20세기 활자본 가집 『대동풍아』와 악곡 편제가 상당히 유사할 뿐더러 작품 수록 순서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가곡원류』와는 전혀 다른 『성악원조 가곡』 계열의 새로운 가집 계열이 존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시조의 장르론 또는 일반론을 다룬 연구에는 김경미(시조 갈래의 특징), 김성문(성리학과 자연인식), 박상영(웃음 유형과 미학), 이도흠(18세기 시조에서의 탈중세성 지향), 임주탁(사족층 시조의 일상성), 조태성(시조의 감성구조)이 있다. 박상영은 한국 시가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웃음’의 성격과 그 미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여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어떤 방식으로 ‘웃음’의 코드를 만들어 내는가에 주목하여 ‘웃음 유형’의 이론적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도흠은 18세기의 사설시조에 상층의 지배담론에 상반되는 봉건모순 풍자, 욕망의 자유로운 표출, 서민성이 표출되었다고 보고 이에서 시가의 탈중세성의 지향을 읽어 내었다. 나아가 그 속에 서양의 근대성과 통하는 보편적 근대성과 함께 조선만의 독자적인 이종의 근대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대성 논의가 그다지 진전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임주탁은 조선시대 사족에게 시조문학이 ‘일상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와 관련된 일상성 담론을 제시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고 보고, 시조 문학에 함축된 일상성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

2) 조성진, 「만행청류와 명대 악부민가 비교 연구 -풍몽룡의 『폐지야』·『산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2, 7~8쪽.

선조기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와 황희의 <사시가>에는 ‘이상화한 사족과 농민의 일상’이, 이현보의 <어부가>에는 ‘자기수양의 일상화’, 이항의 <도산십이곡>에는 ‘진리 학습의 일상화’, 이이의 <고산구곡가>에는 ‘진리 탐구의 일상화’, 이홍유의 <산민육가>에는 ‘소외와 비판 의식의 일상화’, 위백규의 <농가>에는 ‘자치적 생활의식의 일상화’가 담론으로 제시되었다. 일상성 담론은 사족의 실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위에서 살핀 것처럼 그 자신이 서있는 사회·정치적 처지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사대부의 시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문학 창작 자체의 의의보다는 일상적 실천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자칫 도식화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없지 않다.

가집 연구에는 김유경(남훈태평가), 신경숙(『지음(견)』)이 있다. 작가 또는 작가군 연구에는 강혜정(a)(김천택), 김기현(퇴계, 남명), 김용찬(신헌조), 남정희(18세기 경화사족), 류수열이 있다. 남정희는 18세기 시조사에서 사대부 시조의 변화를 이끌었던 경화사족의 시조 향유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지지한 가창 담론과 노래의 지향성, 예술 활동 전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조선후기 경화사족이 시조 향유 공간에서 작품을 생산하고 소통시키는 기반 역할을 하면서 서울의 가곡과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을 밝힌 연구이다. 김용찬(a)은 신헌조의 <봉래악부>에 실린 시조 25수를 분석하여 작가의식과 함께 가집의 성격을 살폈다. 여기에는 사대부로서의 처지와 의식을 반영한 작품들과 함께 개인적 소회나 풍류적 면모를 보이는 작품들도 있는데, 특히 성을 노골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신헌조가 동시대에 향유되던 작품들의 경향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들 작품은 양반 사대부가 성 소재 사설시조를 짓고 즐겼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가집 편찬자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류수열은 민요, 무가, 평시조, 사설시조, 한시, 가사, 판소리, 잡가에 두루 나타나는 사설시조 공유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 근저에 ‘aaba형 措辭’, ‘병렬적 통사 구조’와 같은 사설 위음의 원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작시법의 공유를 확인하였다. 18-19세기에 두드러진 이와 같은 공유 현상을 구술문화의 소산

으로 보고, 민요와 같은 순수 구비시가만을 향유하던 계층들이 문자문학의 성격을 지니는 상층 문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이는 그 당시 독자 또는 향유자들을 스스로 문학을 즐기면서도 생산하는 주체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품 연구에는 김성은(권주가), 박해남(어부가), 양희철(a)(고산구곡가), 육민수(낭원군 이간 시조), 최재형(최영 장군)이 개별 작품을 다루었고, 작품의 하위 유형을 다룬 연구로는 기녀시조(이형우, 조연숙, 허왕욱), 취락 시조(정홍모), 강호연군가(조규익)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김성은은 박인로의 <권주가>의 노랫말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청자 설정, 화자의 대립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이’와 ‘저’의 지시어 사용, ‘어느’, ‘무엇’, ‘땀’과 같은 부정적 의문사 사용에서 드러나는 유한한 삶에 대한 인식을 거론하였다. 이를 통해, ‘술 먹고 즐기자’는 권유가 현세 지향적 세계관과 닿아 있음을 밝혔다. 육민수는 낭원군의 시조가 왕실의 종친연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창작되어 풍류를 즐겼던 낭원군의 면모를 잘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낭원군의 시조가 19세기 후반 이후의 가창의 실제 현장에서는 전승이 거의 단절되었음을 밝혔음에도 그 이유를 따로 더 살피지 않아 낭원군 시조의 주된 특징인 풍류의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사설시조 연구는 강혜정(b), 고정희, 이도흙, 이형대, 조홍욱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정희는 손진태가 1929년 이론에서 출판한 『朝鮮古歌謠集』에 실린 사설시조의 일본어 번역 작품을 통해 사설시조 속의 난해한 어구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이형대는 다중적 근대성의 관점에 따라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근대적 시각 체계(주체와 세계의 분리, 대상 세계에 대한 주체의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의 존재 양상을 밝힘으로써 사설시조의 근대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설시조의 주체는 유교의 규율권력이나 문화 관습이 허용한 시각 장을 벗어나 자율적인 시각 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사적 공간이나 육체에 대한 집요한 시선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각을 통해 세계를 알고자 하는 욕망과 무관하지 않은데, 성적 욕망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바로 여기가 사설시조의 근대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김주수, 강구율, 양희찬은 시조 한역을 연구했고, 국윤주와 권정은, 배은희는 현대 시조에 관심을 가졌다. 김주수는 중국과 한국의 한시를 시조로 번역한 작품을 대상으로 번역 특징과 유형을 살폈다. 또한 번역시임에도 그런 줄 모르고 읽힌 시조 작품을 새로 밝혔다. 국윤주와 배은희는 각각 1900년대와 1920년대의 시조 담론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 국윤주는 1900년대 신문과 잡지 같은 대중매체에 발표된 시가 관련 담론에서의 감정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시조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담론은 감정의 분출을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촉발된 감정을 애국적 열정과 결합시키려 했던 계몽주의적 문학전략과 통한다고 보았다.

소재 또는 제재론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에는 김진희(꽃), 김진희(애정), 김현정(벚), 변승구(임병 양란 배경 시조), 신영명(미타찰과 자연), 신윤경(비), 유종국(대), 임재욱(술), 전재진(매 사냥)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영명은 16세기 자연시조, 곧 이현보와 이황, 권호문과 송순, 이이, 정철의 시조를 <제망매가>와 비교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삶의 궁극적 형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제망매가>에 ‘생사로’와 ‘미타찰’의 대립 구도가 나타나듯, 16세기 자연시조에는 ‘자연’과 ‘세속’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연과 세속의 대립이라는 주제는 이제 조금 식상한 느낌이 있다.

시조와 다른 장르와의 비교나 그 교섭을 다룬 연구에는 판소리 사설 속의 시가를 다룬 이유진과 최진형이 있다. 이유진은 판소리의 시조 수용의 양상을, 인물이 부르는 노래 속에 시조가 끼인 것과 시조 구절을 판소리 사설로 활용한 것으로 나누고 후자가 더 일반적임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시조 구절이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고 유용한 공식구로 정착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판소리가 도시대중예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조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윤덕진은 『남원고사』계 <춘향전> 속의 시가 삽입의 의미를 살피고, 박영준은 시조와 하이쿠를 비교 고찰하였다. 윤덕진은 『남원고사』계 <춘향전>에 실린 다종다양한 시가 작품들이 춘향 담론을 새롭게 서사양식화하려는 작가의식이 세책의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와 관련 있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판소리계 <춘향전>과는 달리 『남원고사』계 <춘향전>이 당

대 애창곡목을 배열한 가집으로서의 역할을 지녔다는 견해는 아주 흥미롭다. 이는 판소리의 서사 안에 노래가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영준의 박사학위논문은 시조와 하이쿠의 형식미, 내용미, 주제의식을 비교한 끝에 하이쿠에 희극미가 주로 나타난다면 시조에는 송고미가 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하이쿠가 본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러나는 골계와 기지를 중심으로 한 시가였던 반면, 시조는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주제의식에서도 하이쿠가 문화적 요소에 중심이 놓여 있는 데 반해, 시조는 사회적·정치적 배경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는 시조와 하이쿠를 다각도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시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조의 편목을 사대부의 평시조를 위주로 한 조선 전기의 시조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시조의 다양한 변모의 양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여 결국 지나친 단순화에 기울어지고 말았다는 한계가 있다. 설인경의 석사학위논문은 향촌 작가 8명의 연시조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여기에 강호 처사로서의 개인적 삶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갈등과 울분을 토로하는 향촌 사회 내 사족으로서의 삶이 대별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전자가 향촌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족들 경우라면, 후자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향촌에 은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황충기의 단행본은 시조를 한시로 번역한 작품을 대상으로 주석을 달고 번역하여 이를 통해 시조를 감상하도록 한 저서이다.

#### 2.4. 가사

가사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 47편, 학위 논문이 9편, 단행본이 4편이 조사되었다. 시조에서처럼 좀 더 세분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구사회와 이상원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구사회가 새로 발표한 규방가사 <감별곡>은 경상도 양반 집안 아녀자들 7인이 출가했다

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헤어지면서 신변탄식을 읊은 노래로, 표기법이나 어휘 사용, 작품 끝의 간기로 미루어 1892년 2월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은 『옥루연가』라는 제목의 필사본 가집(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을 발굴하여, 이것이 그동안 전사본만 알려져 있던 『가사육중』(<옥루연가>, <농가월령가>, <춘면곡>, <강촌별곡>, <어부사>, <노인가> 수록)의 원본임을 밝혔다.

장르론, 또는 일반론은 김종진<sup>b</sup>, 박애경, 신경숙(궁중 연향), 이상원(가사 유통과 가사집 형성), 정인숙<sup>b</sup>(한양), 최미정<sup>a</sup>(국경인식), 최혜진(현대적 계승)에서 보인다. 박애경은 19세기 서울의 가창공간에서 널리 성행하던 <춘면곡>의 전승과정을 통해 19세기 시정문화의 특징적 양상과 징후를 밝히고 시정문화에 유입된 지역문화적 요소를 탐색하고자 했다. 신경숙은 궁중 연향을 노래한 <화조가>가 궁녀 조맹화와 효명세자의 합작품으로 효명세자의 왕권회복을 적극 지지하는 정치적 가요였음을 밝히는 한편, 궁중을 떠난 민간에서는 규방가사와 민요로 서로 다르게 전승되었음을 살폈다. 이는 <화조가>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창작과 전승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최미정은 18세기 가사 작품에 나타난 국경에 대한 논의를 살펴 대안적 근대성론의 관점에서 우리 시대 국경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越境 때의 감상’, ‘명·청 교체에 대한 인식’, ‘舊疆域 회복 의식’, ‘변경민에 대한 인식’이라는 네 요소가 <충병가>, <서정별곡>, <북정가>, <갑민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국경 담론의 중층적 성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경은 ‘線이 아닌 面’으로서, ‘지역감각’으로서, ‘창조적인 인간화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드러난다.

가사집에 대한 연구는 고순희<sup>a</sup>를 들 수 있고, 작가 또는 작가군에 대한 연구는 고순희<sup>b</sup>(안동권씨 가문), 손대현(박인로)를 들 수 있다. 고순희<sup>a</sup>는 <간운수>의 작가가 김우락(1854~1933)임을 밝히고, 노년의 여성이 일제 침략과 만주 망명이라는 근대사의 격변 속에서 근대인식과 여성인식의 외연이 확장된 양상을 다룬 작품으로 보았다.

개별 작품론으로는 김신중(애일가), 김종진<sup>a</sup>(관서별곡), 박애경, 서철원(두

굉 가사), 성호경(관동별곡), 조태성(축산별곡), 최현재(자도사)이 있다. 이 가운데 성호경은 <관동별곡>의 창작배경은 물론, 신라 四仙을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사선과 만나고 ‘謫仙’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결말로 이어지는 구성에서, 그리고 신선의식 실현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결말의 표현에서 정철의 신선의식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작품 유형론에는 기행가사(김기영, 김신중, 염은열), 사행가사(김미정, 김윤희<sup>a/b</sup>, 이병철), 규방가사(백순철, 정인숙<sup>a</sup>, 조세형·정인숙), 강호가사(이상호), 개화기가사(신지연<sup>a</sup>, b), 천주가사(조원형), 임란기 부산의 전란가사(황병익)를 다룬 예가 있다. 김윤희<sup>b</sup>는 한문으로 된 사행일기와 국문으로 된 사행가사의 언어적·문학적 특질을 비교하고, 이를 다시 근대적 글쓰기와 대비하는 가운데 후자가 ‘모어’를 통해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당대인들의 문학적 욕망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자국어만의 가치와 효용성을 전제로 한 문학적 실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백순철은 여성의 일상의 핵심이 가사노동에 있다고 보고, 규방가사에 나타난 가사노동을 가족력의 재생산을 위한 것과 인간상호적 관계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 그에 따라 여성화자의 인식, 감정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폈다. 정인숙은, 시골 여성이 서울로 유학 간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는다는 내용을 지닌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시골여자 슬픈 사연>을 통해 도시화에서 소외된 시골 여성의 자아인식을 살펴면서 아울러 근대전환기 이혼담론을 재조명하였다. 조세형·정인숙은 정인숙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인 <시골여자 슬픈사연>과 가사체가 아닌 <녀자의 설음>을 비교함으로써 근대전환기의 갈등과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여성들의 처지에 주목하였다.

소재 또는 제재론적 접근으로는 손앵화(꽃)와 전재강의 불교가사 연구 4편이 있다. 전재강은 불교가사를 대상으로 그 형성의 발생학적 정황, 구조적 성격, 담화 방식 등을 살폈다. 신지연 등은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과 자료 현황을 살펴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한편 정소연은 서울에 사는 남성 작가인 예광 장성연이 지은 작품을 통해 현대가사의 특징을 분석하여 전통의 지속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대가가 지방에 사는 여성작가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보는 많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른 장르와의 비교나 그 교섭을 다룬 연구에는 김무식(국어학적 관심), 김주수, 정한기(가사의 민요취향)의 연구가 있다. 김무식은 19세기 중·후반에 창작되고 20세기 초반에 필사된 <기슈가>를 비롯한 일련의 가사 작품을 대상으로 자료에 반영된 음운체계, 음운현상, 어휘의 방언적 성격과 그 특징을 연구한 것이다. 정한기는 김매기를 소재로 한 한시와 비교하는 가운데 李喆輔(1691~1770)의 가사 <기음노래>에 나타난 민요취향의 의미가 작중 농부의 내면과 타자에 대한 농부의 대비적 태도에서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각각 농사현장에서 유발된 농부의 苦樂과 유교이념에서 자유로운 농부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가사 갈래의 학위논문은 모두 8편이 있는데 유형별 연구에 해당하는 김윤희(사행가사)의 박사논문과 이재준(유배가사), 홍진영(연행가사), 여형옥(애정가사)의 석사논문, 개별 작품론에 해당하는 강동완(사미인곡), 신현웅(이운영 가사), 지아임(사향가), 최분순(만분가)의 석사논문이 있다. 박수진의 박사논문은 특정 지역의 가사문학을 다루었다.

김윤희의 박사논문은 조선후기 사행가사를 대상으로 시대에 따른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의 변모를 다루었다. 예컨대 17세기 사행가사는 중화주의에 의해 형성된 화자의 인식이 서정적 층위로 수렴되어 대명의리론에 기반한 감정적 진폭이 확인되며, 18세기 사행가사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차츰 개방된 인식을 갖게 되면서 대타적 자국 인식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갖게 되어 시적 주체의 시선이 유연해진 결과인 바, 대타적 자기 인식의 강화와 그에 따른 문체의 특질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현웅의 석사학위논문은 조선후기 옥국재 이운영(1722~1794)의 가사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식을 규명하고 있는데, 당시 경화사족 가사와의 공시적 대비와 후기 가사와의 통시적 대비를 통해 이들 작품이 지닌 가사문학사적 의미를 살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수진의 박사학위논문은 장흥지역 가사문학에 대해 문화지리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화’, ‘욕망의 현실화’, ‘과시의 공간

화’라는 문화지리학적 표상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살폈다.

가사 단행본에는 4편이 있는데, 박광정의 『농가월령가』와 이복규의 『개신교가사』는 자료집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정인숙의 『가사문학과 시적 화자』, 정한기의 『여행문학의 표현과 창작배경』은 박사학위 논문과 최근의 논문을 몇 편을 엮은 것이다. 그럼에도 전자는 여행문학으로서의 기행가사의 주요 특질을, 후자는 화자 또는 목소리의 관점에서 이론과 실재를 꼼꼼히 살피고 있어 주목된다.

## 2.5. 잡가, 민요

학술지 논문은 4편, 박사 논문이 1편 조사되었는데, 발표 논문의 숫자도 부족할 뿐더러 모두 개별 작품론에 치우쳐 공통된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김종진은 <배따라기>의 유형과 구성 원리를 살폈고, 서영숙은 호남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통해 영남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 최상은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홍타령>이 수용되고 변개된 양상을 살폈다. 한편 이형대는 20세기 초 대중가요 형성기에 잡가집에 실린 <난봉가>류 통속민요가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폈다.

박지애의 박사논문은 20세기 전반기 잡가를 대상으로 잡가의 매체별(잡가집, 유성기음반, 라디오) 향유방식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 아울러 연행 기반과 사실에 반영된 그 변모 과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 2.6. 일반론, 기타

학술지 논문이 8편, 단행본이 5편으로 조사되었다.

김은희는 ‘한양’이란 공간을 형상화 한 18~19세기 시조와 가사, 한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발달과 상업화에 따른 여항-시정 공간이 상층의 고급문화와 하층의 서민문화가 상호 교류하면서 공존·통합하는 양상을 살폈다. 정인숙은 20세기 초 시가, 주로 가사와 시조, 창가에 함께 나타나는, 왕조도시 ‘한양’과 식민도시 ‘경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인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

지를 분석하였다.

김학성과 양태순은 각각 ‘18세기 시가문학과 대안적 근대의 탐색’, ‘고전 시가와 일상성의 문제’라는 한국시가학회의 기획에 부응한 기초 발표문이다. 전자는 서구의 기준에 따른 근대가 ‘반봉건-반중세’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물질문명, 자기중심의 욕망 성취를 앞세운 제국주의로 요약되는 ‘전복적 근대’로 파악하고, 그것이 지닌 시대적 의의와 함께 한계를 지적하며 탈근대의 방향 모색을 위해 ‘우리의 근대’를 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18세기 우리 시가에 나타난 ‘화평적 근대’에서 ‘전복적 근대’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찾았다. 후자는 현대 서양 철학자들의 일상성 개념(하이데거의 ‘잡담·호기심·애매함’, ‘집이 일상성의 토대’라는 레비나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전시가와 현대시를 대비함으로써 이 일상성 개념이 고전시가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훌륭한 준거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고전시가와 현대시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밝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3. 결론

지금까지 2010년 시가문학 분야 연구동향을 간단히 살폈다. 연구자의 불찰로 아까운 성과가 혹 누락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점은 뒤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고는 이들 연구에 대한 평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과 자체를 정리하고 주목할 만한 것만 부각시키고자 했지만, 그런 애초의 의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칫하면 지난 연구들을 아우르는 관점의 부재를 드러내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위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듯이, 새 자료 발굴의 성과가 적지 않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다양한 관심을 내보인 연구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여전히 시조와 가사 언저리에 몰리는 현실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는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시가 연구가 자료의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제약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

만, 그럴수록 더욱 다양한 방법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시가 장르와 다른 장르의 교섭에 관한 연구나 외국 문학 작품과의 비교를 시도한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자료의 한계에 따른 연구 제약에 당면한 우리 시가 연구의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는 데 비교 연구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세 나라 사이의 교류가 날로 증가하는 요즘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문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적절한 시야와 연구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별다른 근거 없이 예의 중국영향론을 거론하고 마는 것은 진정한 문학 비교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가사 연구에서 두드러졌던, 시가 작품에 나타난 구체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문학적 대응에 관한 연구는 문학 비교와 함께 앞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 여행과 교류가 활발하고 외국 자료를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 공간의 확장을 통한 관심사의 다양화는 시대적인 추세이다. 공간이 우리의 인식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처럼 확장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가 새로운 문학적 발견과 인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고대가요

## &lt;학술지 논문&gt;

- 박인희, 「〈황조가〉의 배경 연구」, 『고시가연구』 2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손복희, 「〈공무도하가〉 창작연대에 관한 연구: 악기 箏篋를 中心으로」, 『한어문교육』 2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0. 6.
- 조용호, 「풍요기원 노래로서의 〈구지가〉 연구」, 『서강인문논총』 27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한예찬, 「琉璃明王의 〈黃鳥歌〉 研究: 작품 속에 드러난 情調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25집, 온지학회, 2010. 5.
- 현승환, 「공무도하가 배경설화와 무혼굿」, 한국민속학회, 2010.

## 2. 향가

## &lt;학술지 논문&gt;

- 김수향, 「차자표기 “내(內)” 와 향가의 해석」, 『진단학보』 110호, 진단학회, 2010.
- 김유범, 「균여의 향가 〈廣修供養歌〉 해독」, 『구결연구』 25집, 구결학회, 2010.
- 김혜은, 「향가와 한시의 장르적 상보 관계 고찰」,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12.
- 류병윤, 「향가 형성의 음악적 기반」, 『한어문교육』 2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0. 12.
- 박용식, 「향가 문법 형태의 표기에 반영된 古形과 改新形」, 『한국어문학연구』 54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박재민a, 「〈擘星歌〉 固有語 再構 4題와 文學的 示唆」, 『고전과 해석』 8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박재민b, 「박창화 필(筆) 『화랑세기(花郎世紀)』 진위성(眞僞性) 검토-의작(擬作) 시가(詩歌)를 中心으로」,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2.
- 서철원a, 「〈普賢十願歌〉와 禪詩를 통해 본 종교시의 서정성 문제」, 『고전문학연구』 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6.
- 서철원b,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 형상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 이선이, 「均如 향가에 나타난 澄觀의 영향」, 『普照思想』 34집, 불일출판사, 2010.

- 이승남,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적 의미소통과 〈모죽지랑가〉」, 『한국사상과 문화』 54집, 2010.
- 이창민, 「향가 현대시화의 맥락과 방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3.
- 이창식, 「길과 향가에 대한 고고민속학시론」, 『비교민속학』 43집, 비교민속학회, 2010. 12.
- 정소연, 「〈普賢十願歌〉의 漢譯 양상 연구: 향가와 한역시의 구조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학』 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 채수명, 「국경·이념·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환상곡(幻想曲): 〈서동요〉에 관한 종합분석을 중심으로」, 『문학사랑』 93호, 오늘의문학사, 2010.
- 최재남, 「민요계 향가의 구성 방식과 사랑의 표현: 〈서동요〉와 〈헌화가〉의 대비」,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 최정선, 「鄉歌 記述 양상에 관한 비교 연구: 萬葉和歌와 비교를 통해」, 『한민족문화연구』, 3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 황선엽, 「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에 대하여」, 『구결연구』 25집, 구결학회, 2010.

## &lt;학위 논문&gt;

- 홍민우, 「『花郎世紀』 所載 시가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10. 6.

## &lt;단행본&gt;

- 고가연구회 편, 『향가의 수사와 상상력』, 보고서, 2010.

## 3. 고려가요

## &lt;학술지 논문&gt;

- 김기영, 「『증보문헌비고』 「악고」의 고려가요 인식과 그 의미」, 『語文研究』, 66집, 어문연구학회, 2010.
- 김병준, 「고려 처용가의 무가적 성격에 대한 재고」, 『韓國詩歌研究』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5.
- 서철원a, 「〈청산별곡〉의 구성 방식과 향가와 속요의 전통」, 『비평문학』 3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 서철원b, 「주제론을 중심으로 한 속요와 『만엽집(萬葉集)』 비교 試論」, 『고시가연구』 2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어강식, 「구조적 상관성으로 본 쌍화점」,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이정선a, <가시리>의 편사와 문학적 해석, 『한국언어문화』 4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이정선b, 「<雙花店>의 구조를 통해 본 성적 욕망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71집, 성균관대 출판부, 2010.

조규익, 「텍스트 地平의 확대: <動動>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0.

조평환, 「고려속요에 나타난 불교문화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 26집, 2010.

조하연, 「<서경별곡>의 ‘타들면’ 구절의 사후과잉확신 편향에 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 17집, 2010.

최은숙, 「<쌍화집> 관련 텍스트에 나타난 소문의 구성 양상과 기능, 『동양고전연구』 39집, 동양고전학회, 2010.

황병익a, 「<動動> 頌禱之詞 盖效仙語의 의미 고찰, 『고전문학연구』 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6.

황병익b, 「<청산별곡> 8연의 의미 재론, 『민족문화논총』,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 <학위 논문>

김지은, 「音聲象徴으로 본 高麗俗謠의 餘音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단행본>

강현규, 『고가요의 주석적 연구』, 한국문화사, 2010.

손종흠, 『속요 형식론』, 박문사, 2010.

이득룡, 『麗謠釋註』, 한국학술정보, 2010.

#### ▪ 경기체가

##### <학위 논문>

변유유, 「경기체가 연구: 송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상대 박사학위논문, 2010.

#### ▪ 약장

##### <학술지 논문>

정무룡, 鄭道傳 樂章의 형상적 함의와 시가사적 위상, 『인문학논총』,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조규익a, 「鮮初樂章 <五倫歌>의 시대적 의미, 『온지논총』 24집, 온지학회, 2010.

조규익b, 「文昭殿 樂章 研究, 『고시가연구』 25집, 한국고시기문학학회, 2010.

#### <학위 논문>

김승우, 「<龍飛御天歌>의 成立과 受容·變轉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 4. 시조

##### <학술지 논문>

장구윤, 「漢詩吟誦의 時調吟誦에의 適用 可能性 試探, 『시조학논총』 33집, 한국시조학회, 2010. 7.

강혜정a, 「김천택의 교유와 <청구영언>의 편찬 과정, 『고시가연구』 26집, 한국고시기문학학회, 2010.

강혜정b, 「만황청류의 형성 기반과 여항가요와의 친연성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62집, 민족어문학회, 2010.

고영화, 「時調에 나타난 말에 대한 인식, 『어문연구』 38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년 봄.

고정희, 「손진태의 『朝鮮古歌謠集』을 통한 사설시조 난해어구의 해석, 『국문학연구』 22호, 국문학회, 2010. 11.

국윤주, 「1900년대 시가담론과 시조의 재인식,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권순희, 19세기 전반 가곡 가집 『시가전(詩歌典)』의 특성과 계보,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권정은, 「연시조의 현대적 계승과 종장 운용의 특성: 이병기의 연시조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김경미, 「시조의 갈래의 특성: 발달과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김기현, 시조(時調)로 만나는 퇴계 남명 두 분의 선비정신, 『선비문화』, 남명학연구원, 2010.

김성문, 「16세기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성리학과 자연인식 양상, 『어문논집』 44집, 중앙어문학회, 2010. 7.

김성은, 「蘆溪 <勸酒歌>의 詞에 나타나는 특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5.

김용찬a, 「<봉래악부>의 성격과 신현조의 작품 세계,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5.

김용찬b, 「<평산신씨 가승>의 성격과 신현조 시조의 유포 양상, 『한민족어문학』 56호, 한민족어문학회, 2010. 1.

- 김유경, 「방각본 『남훈태평가』의 간행 양상과 의의」, 『열상고전연구』 3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6.
- 김주수, 「한시(漢詩) 번역 시조(時調) 연구 -제 양상과 미발굴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 시가학회, 2010. 5.
- 김진희a, 「꽃 소재 작품을 통해 본 고시조의 미의식 : <靑丘永言> 珍本과 六堂本の 비교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8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4.
- 김진희b, 「女唱歌曲에 나타난 애정의 양상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 김현정, 「강호시조에 나타난 '벗'의 유형과 공간성의 관계」, 『겨레어문학』 44집, 겨레어문학회, 2010. 6.
- 남정희, 「18세기 시조 문맥에서 경화사족의 위치」, 『국문학연구』 21호, 국문학회, 2010. 5.
- 류수열, 「조선 후기 시가의 사설 공유 현상과 작가성의 행방」,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 시가학회, 2010. 5.
- 박상영, 「시조를 통해 본 한국시가의 웃음 유형과 그 미학」,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 박영준, 「한일 단형시가의 비교연구: 시조와 하이쿠(배구)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1.
- 박해남, 「樂章歌詞本 어부가 再考」, 『반교어문연구』, 2010.
- 배은희, 「1920년대 시조론 형성과정 고찰」,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 변승구, 「임·병 양란 배경 시조의 역사 인식 표출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81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12.
- 신경숙, 「19세기 말 가집 『聲樂元祖 歌曲』의 성격」,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 신경숙, 「가집 『知音(乾)』의 시대와 지역」,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1.
- 신명영, 「미타찰과 자연」,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 신윤경, 「고전시가에 나타난 '비'의 실상과 그 의미: 시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양희찬a, 「한시 호아곡의 시조역 작법에 대한 고찰」,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 양희철b, 「<고산구곡가>식 대칭표현형 연시조들의 유형성과 개별성」, 『어문연구』 64권, 어문연구학회, 2010. 6.
- 양희철c, 「대칭표현을 포함한 연시조들의 유형성: <도산육곡>식과 <방진산군수 가>식의 대칭표현형을 중심으로」, 『배달말』 46호, 배달말학회, 2010. 6.
- 양희철d, 「연시조 <매화사>의 세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7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9.
- 유종국, 「대나무의 문학적 형상화: <絶義歌>, <五友歌>(竹), <竹尊者傳>, <抱節君傳>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9집, 국어문학회, 2010.
- 육민수, 「낭월군 인간의 시조 연구」, 『반교어문연구』 28집, 반교어문학회, 2010.
- 윤덕진, 「『남원고사』계 『춘향전』 수록 시가의 서사양식화 과정」,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 시가학회, 2010. 5.
- 이도훈, 「18세기 시조에서 탈중세성의 지향과 근대성 문제」,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 시가학회, 2010. 5.
- 이유진, 「판소리의 시조 수용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29집, 판소리학회, 2010. 4.
- 이형태, 「사설시조와 근대성: 사설시조의 시적 시선과 근대적 시각 장(場)의 연관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 시가학회, 2010. 5.
- 이형우, 「기생 시조 '공간'의 體質詩學的 고찰」,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임재욱, 「애정시조에 활용된 '술'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임주탁, 「조선시대 사족층의 시조와 일상성 담론」,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 전재진, 「時調의 '매사냥' 담론과 문화권적 通涉의 양상」, 『인문과학』 9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8.
- 정홍모, 「취락시조의 제양상」, 『한민족문화연구』 34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8.
- 조규익, 「강호연군가와 시조사 전개에 한 단서」,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 조연숙, 「기녀시조의 전개 양상과 성격」, 『아시아여성연구』 49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10.
- 조태성, 「시조의 감성 구조: 감·발·흥의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 조홍욱, 「사설시조의 인물 서술 양상 연구」, 『어문학논총』 29권,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10.
- 최재형, 「최영장군의 시조문학」, 『한국문인』 60호, 새한국문학회, 2010. 2.
- 최진형, 「시조와 판소리의 관련 양상」,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0.
- 허왕욱a, 「기녀 시조의 자기표현 양상 연구: 18세기 가집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0. 6.

허왕옥b, 시조에서 승려 형상화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12.

#### <학위 논문>

박영준, 「시조와 하이쿠의 미의식 비교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0.

설인경, 「18세기 향촌 사족의 시조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0.

#### <단행본>

황충기, 『古時調 漢詩譯의 註釋과 反譯』, 푸른사상, 2010.

### 5. 가사

#### <학술지 논문>

고순희a, 「만주망명 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 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6.

고순희b,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 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 『국어국문학』 155집, 국어국문학회, 2010.

구사희, 「새로운 가사 작품 <감별곡>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26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김기영, 주왕산 기행가사의 문예적 실상과 현재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73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김무식, 「<기슈가>의 음운현상 및 방언 어휘」, 『우리말연구』 26권, 우리말학회, 2010.

김미정, 「使行歌辭의 文學的 價値 考察」, 『語文研究』 65집, 어문연구학회, 2010.

김신중, 「기행가사의 범주 및 유형 검토」, 『어문논총』 21호, 전남대 한국언어문학연구소, 2010.

김신중b, 「양산보 <애일가>의 전승과 성격」, 『고시가연구』 25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김윤희a, 「사행가사 <임자연행별곡>의 창작 맥락과 문학적 특질」, 『고시가연구』 25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김윤희b,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창작 과정과 언어적 실천의 문제」,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김종진, 「<관서별곡>의 문화지도와 국토 국경 인식」, 『국제어문』 50집, 2010.

김종진, 「歌辭와 지도의 공간현상학」, 『한국문학연구』 3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김주수, 송강 한시와 가사의 비교 연구: <代人戲別梧陰>와 <사미인곡>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3집, 우리한문학회, 2010.

박애경, 「<춘면곡>을 통해 본 19세기 시정문화와 그 주변」,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의미와 ‘일상성’의 문제」,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서철원, 「枕肱 歌辭의 종교적 자연관」, 『批評文學』 35집, 韓國批評文學會, 2010.

성호경a, 「<關東別曲>의 형상화와 鄭澈의 신선의식」, 『고전문학연구』 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6.

성호경b, 「가사 <관동별곡>의 종착지 ‘월송정 부근’과 결말부의 의의」, 『국문학연구』 22호, 2010.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손영화, 「최송설당 가사에 나타난 꽃의 의미화 방식」, 『고전과 해석』 8권,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신경숙, 「궁중 연향에서의 가사 창작과 전승: <화조가>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26집, 2010.

신지연·최혜진·강연임, 「개화기 가사 자료의 현황과 의미」, 『語文研究』 64집, 어문연구학회, 2010.

신지연·변승구,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 고찰」, 『한국언어문학』 7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양희찬, 「<성산별곡>의 읽기맥(脈)과 성격」, 『고시가연구』 25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염은열, 금강산 가사의 지리적 상상력과 장소 표현이 지닌 의미」,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2.

윤덕진, 노래로서 가사의 본 모습 찾기」,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이병철, 「연행가사의 提言과 <연행가>를 통해 본 전환기 조선」, 『한국사상과 문화』 5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이상원, 「조선후기 가사의 유통과 가사집의 생성: 『가사육중』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0.

이상호, 「강호가사에 나타난 형상적 사고의 특성 연구」, 『국어교육연구』 25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0.

임재욱, 「<黃鷄詞>의 연원」, 『국문학연구』 21호, 국문학회, 2010.

장정수,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 형상, “비구니 되기”와 “환속 권유”」, 『한민족문

- 화연구』 3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 전재강a, 만공 선사 불교 가사의 유기적 상관 맥락과 담화 방식, 『어문학』 109집, 한국어문학회, 2010.
- 전재강b, 불교 가사 형성의 발생학적 정황, 『우리문학연구』 31집, 우리문학회(구, 우리문학연구회), 2010.
- 전재강c, 「참선곡류 불교 가사의 구조적 성격」, 『우리말글』 50집, 우리말글학회, 2010.
- 전재강d, 「학명의 불교 가사에 나타난 선의 성격과 표현 방식」, 『어문학』 107집, 한국어문학회, 2010.
- 정소연, 예광 장성연의 현대가사에 나타난 전통의 지속과 변화, 『청람어문교육』, 제41집, 청람어문교육학회(구 청람어문학회), 2010.
- 정인숙, 「고전문학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시골여자 슬픈 사연>의 성격과 여성 화자의 자아인식: <쇠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 정한기, 「歌辭에 나타난 民謠趣向의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10.
- 조세형·정인숙, <시골여자 슬픈사연>과 <여자의 설음>에 나타난 근대전환기 구여성의 위기와 목소리, 『국어교육』 133집, 한국어교육학회, 2010.
- 조원형, 천주가사 『삼세대의』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한국학연구』 22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0.
- 조태성, 「정식의 <축산별곡(竺山別曲)>과 그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26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 최미정a, 국경 논의를 바라보는 근대, 탈근대 그리고 대안적 근대성론의 관점: 18세기 가사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5.
- 최미정b, 연행가사의 국내 여정에 나타난 취한 사행의 모습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40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0.
- 최현재, 「연군가사 <자도사>의 특징과 의의」, 『동양고전연구』 41집, 동양고전학회, 2010.
- 최혜진, 「가사문학의 향유 전통과 현대적 계승」,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 한뢰, 「삼국시대 가사부전가요에 대한 연구: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경상어문』 16집, 경상어문학회, 2010.
- 황병익, 「임란기 부산지역 戰亂歌辭의 의미 고찰」, 『항도부산』, 26호,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2010.

#### <학위 논문>

- 김윤희, 「조선 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수진, 「長興地域 歌辭文學의 文化地理學的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0. 8.
- 강동완, 「정철 작 <사미인곡>, <속미인곡>이 후속 작품들에 끼친 영향 연구: 화자의 태도와 담화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신현웅, 「옥주재(玉局齋) 이운영(李運永) 가사의 특성과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여형욱, 「愛情歌辭 話者의 認識 指向과 作品世界」,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재준, 유배가사 갈등 구조 및 사대부 집단 의식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서울사립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지아임, 「천주가사 <사향가>의 연구」,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최분순, 「조위의 <만분가>에 나타난 한의 양상」,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10.
- 홍진영, 「19세기 연행가사의 성격 연구: 서술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0.

#### <단행본>

- 박광정, 『농가월령가』, 서문문화사, 2010.
- 이복규, 『개신교가사』, 學古房, 2010.
- 정인숙, 『가사문학과 시적 화자』, 보고사, 2010.
- 정한기, 『여행문학의 표현과 창작배경』, 月印, 2010.

#### 7. 잡가, 민요

##### <학술지 논문>

- 김종진, 「雜歌 <배따라기>의 유형과 구성 원리」,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5.
- 서영숙, 「영남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 호남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위하여」, 『고시가연구』 26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 이형태, 「근대 대중가요의 형성과 통속민요의 변주: <난봉가>류의 텍스트 변이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26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 최상은, 「19세기말, 20세기초 민요 <홍타령>의 수용과 변개 양상: 잡가와 대한매 일신보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5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 <학위논문>

박지애,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향유방식과 변모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6.

#### 8. 일반론, 기타

##### <학술지 논문>

김은희, 「18~19세기, 시적 공간으로서의 한양에 대한 일고찰: 교류와 통합, 공존에 주목하여」,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김학성, 「18세기 시가문학과 대안적 근대의 탐색 ; 기초발표 : 근대논의 문제와 18세기 우리 시가」,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 시가학회, 2010. 5.

안대회, 「서명인의 악부시 창작과 국문시가」,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 시가학회, 2010. 5.

양태순, 「공시적 관점에서 본 고전시가와 일상성의 문제」,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 시가학회, 2010. 11.

이연숙, 「고대 한일 사랑의 노래 비교 연구」, 『韓國文學論叢』 56집, 2010.12.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 장르의 존재 양상과 근대적 대응」, 『시조학논총』 32집, 한국시조학회, 2010. 1.

임재욱, 「고전시가 작품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오/우-’의 기능」,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

전일환, 「한국고시가의 어울림의 미학」, 『고시가연구』 2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정인숙, 「20세기 초 시가에 나타난 ‘한양’과 ‘경성’의 공간인식과 그 의미」, 『서울학연구』 41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0. 11.

##### <단행본>

김문기·김명순, 『時調·歌辭 漢譯資料集成 1-2』, 태학사, 2010.

김정주,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0.

김창룡, 『한국 노래문학의 의혹과 진실』, 태학사, 2010.

황병익, 『고전시가: 사랑을 노래하다』, 부산: 산지니, 2010.

허남춘,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사, 2010.